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(2012년 1/4분기)

2012. 5. 4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□ 2012. 1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0.2% 감소한 62.0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아시아, 북미와 중남미, 업종별로는 제조업, 광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심 투자

【 지역별 】

□ 아시아와 중남미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세인 반면, 북미와 유럽은 감소세

- 아시아와 중남미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각각 88.4%, 80.1%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북미 -52.8%, 유럽 -62.8% 감소, 대양주, 중동, 아프리카는 소폭 증가세

※ 아시아(30.9억 달러), 북미(9.0억 달러), 중남미(7.5억 달러), 대양주(6.9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□ 제조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증가세인 반면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은 감소세

- 제조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는 각각 100.7%, 332.1%로 큰 폭 증가하여 비중이 각각 41.9%, 26.9%에 달함.
- 광업 투자는 에너지 공기업 투자(11.6억 달러)의 전년동기 대비 53.3% 감소가 감소세의 주요 요인

※ 제조업(26.0억 달러), 광업(16.7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6.9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3.8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.3% 감소하여 그 비중이 전년 동기 84.5%에서 83.6%로 축소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51.1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(54.1%) 대비 소폭 감소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80.5%에서 금분기 78.3%로 감소

I. 개 요

- 2012. 1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62.2억 달러 대비 0.2% 감소한 62.0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685개에서 12.8% 감소한 597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비중이 큰 아시아 및 중남미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8.4%, 80.1%의 증가율을 보였으며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0.7%로 큰 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, 광업은 -38.0%의 감소세를 보였음.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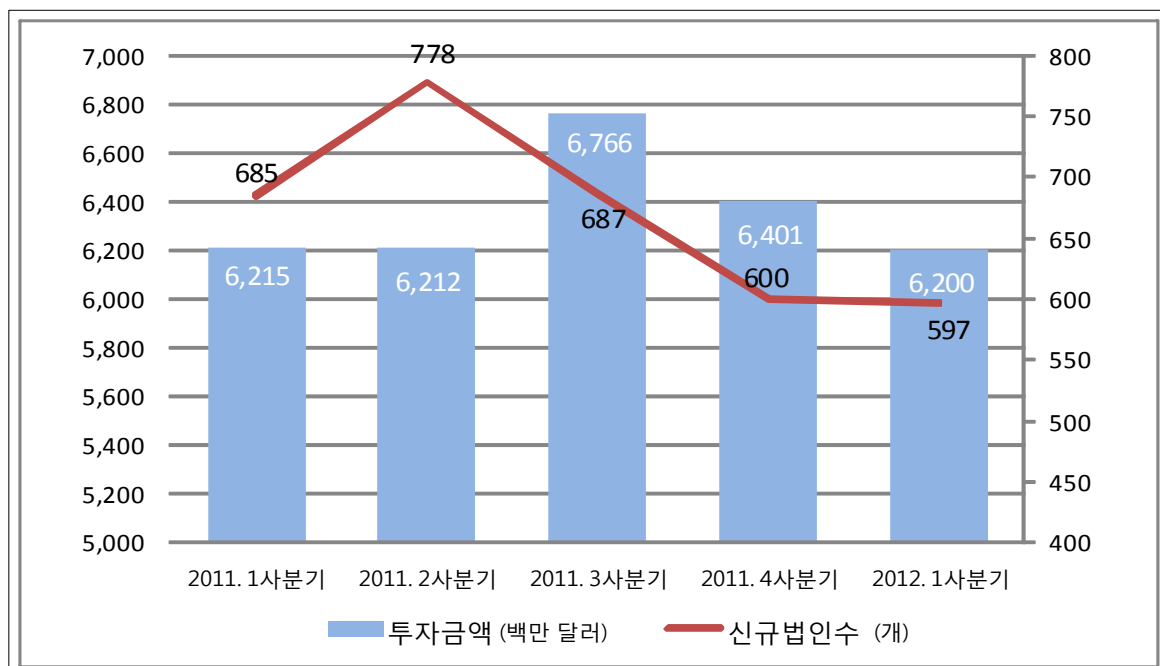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1/4		2012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	20,327	2,478	24,245	2,868	25,594	2,750	6,215	685	6,200	597
(증가율)	-14.7%	-38.5%	19.3%	15.7%	5.6%	-4.1%	86.2%	2.1%	-0.2%	-12.8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아시아(49.8%), 북미(14.5%), 중남미(12.1%), 대양주(11.1%), 유럽(9.3%) 순이며, 업종별 제조업(41.9%), 광업(26.9%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1.2%) 순임.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
중국(9.1), 필리핀(8.7), 미국(7.7), 오스트레일리아(6.7), 브라질(5.4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
A사 (8.5), B사 (7.7), C사 (3.9), D사 (3.1), E사 (2.6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
A사 필리핀 현지법인 (8.5)

B사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 (6.2)

C사 중국 현지법인 (3.9)

D사 미국 현지법인 (2.6)

F사 미국 현지법인 (2.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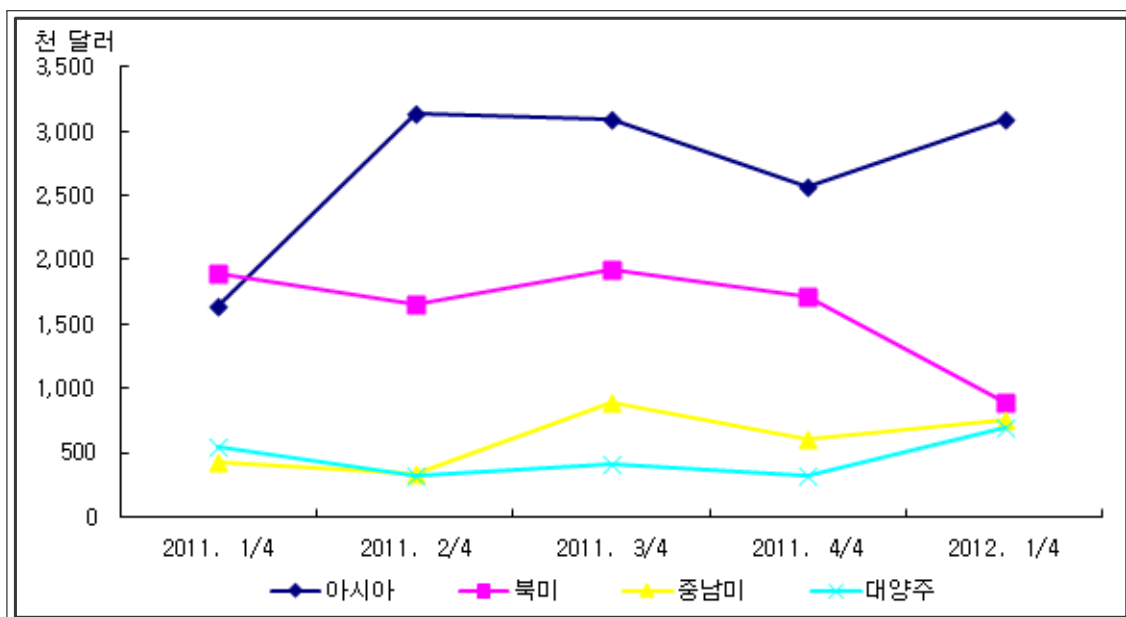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아시아와 중남미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대양주, 중동, 아프리카도 모두 소폭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세 시현한 가운데, 북미와 유럽은 각각 -52.8%, -62.8%로 감소세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9.8%, 북미 14.5%, 중남미 12.1% 순이며,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6.4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26.4%, 30.6%, 24.9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1.8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9.1억 달러), 필리핀(8.7억 달러), 북미 내에서는 미국(7.7억 달러), 중남미 브라질(5.4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17.5억 달러)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(5.4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7.1억 달러)과 제조업(0.9억 달러), 중남미 제조업(4.3억 달러)와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4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1/4		2012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6,678	1,579	9,924	1,917	10,441	1,860	1,639	447	3,088	401
(비중)	32.9%	63.7%	40.9%	66.8%	40.8%	67.6%	26.4%	65.3%	49.8%	67.2%
(증가율)	-42.9%	-42.6%	48.6%	21.4%	5.2%	-3.0%	25.9%	-0.4%	88.4%	-10.3%
북미	5,998	535	4,601	552	7,196	460	1,899	122	897	113
(비중)	29.5%	21.6%	19.0%	19.2%	28.1%	16.7%	30.6%	17.8%	14.5%	18.9%
(증가율)	14.1%	-33.8%	-23.3%	3.2%	56.4%	-16.7%	78.6%	-10.3%	-52.8%	-7.4%
유럽	5,327	131	6,117	152	3,526	156	1,547	39	575	32
(비중)	26.2%	5.3%	25.2%	5.3%	13.8%	5.7%	24.9%	5.7%	9.3%	5.4%
(증가율)	57.2%	-33.2%	14.8%	16.0%	-42.4%	2.6%	191.5%	2.6%	-62.8%	-17.9%
중남미	1,041	89	2,138	94	2,257	108	418	30	753	22
(비중)	5.1%	3.6%	8.8%	3.3%	8.8%	3.9%	6.7%	4.4%	12.1%	3.7%
(증가율)	-50.5%	-3.3%	105.3%	5.6%	5.6%	14.9%	147.3%	100.0%	80.1%	-26.7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0.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8.4% 증가하였으며, 신규 법인수는 10.3% 감소한 401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9.1억 달러), 필리핀(8.7억 달러), 일본(2.9억 달러), 홍콩(2.5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국 투자비중이 28.1% 차지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9년 32.5%, '10년 36.5%, '11년 34.2%, '11. 3/4분기 34.7%, '11. 4/4분기 24.7%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17.5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5.4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2.2억 달러), 광업(1.7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제조업 투자비중이 56.6% 차지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23.4%, '10년 80.0%, '11년 53.5%, '11. 3/4분기 72.1%, '11. 4/4분기 39.1%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필리핀 제조업 투자 : 8.5억 달러
 - C사의 중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3.9억 달러
 - G사의 일본 제조업 투자 : 1.3억 달러

나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2.8% 감소한 9.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7.4% 감소한 113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7.7억 달러), 캐나다(1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광업(7.1억 달러), 제조업(0.9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2억 달러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 사업(0.2억 달러)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0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이 78.7%, 제조업은 10.3% 차지
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50.3%, '10년 27.7%, '11년 44.1%, '11. 3/4분기 43.8%, '11. 4/4분기 59.7%
- 북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1.8%, '10년 7.9%, '11년 7.2%, '11. 3/4분기 7.8%, '11. 4/4분기 9.6%
- 주요 투자 사업
 - D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2.6억 달러
 - F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2.5억 달러
 - B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0.9억 달러

다. 유럽

- 유럽의 금분기 투자금액은 5.8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32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-62.8%, -17.9%를 기록하여 투자금액이 대폭 감소

- 국가별로는 프랑스(1.3억 달러), 독일(0.9억 달러), 영국(0.7억 달러), 네덜란드(0.7억 달러), 터키(0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.6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2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0억 달러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(0.3억 달러), 광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제조업 투자 비중은 45.1%,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은 20.3%에 달함.
 - 유럽지역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0%, '10년 15.7%, '11년 17.2%, '11년 3/4분기 26.7%, '11년 4/4분기 45.1%
 - 유럽지역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 : '09년 8.5%, '10년 5.8%, '11년 2.6%, '11년 3/4분기 2.8%, '11년 4/4분기 20.3%
- 주요 투자 사업
 - E사의 프랑스 제조업 투자 : 1.0억 달러
 - E사의 독일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0.8억 달러
 - H사의 영국 제조업 투자 : 0.5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투자금액은 7.5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2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80.1%, -26.7%를 기록하여 금액이 대폭 증가
- 국가별로는 브라질(5.4억 달러), 파나마(0.9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4.3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주요 투자 사업
 - I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1.2억 달러
 - J사의 브라질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1.0억 달러
 - K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9억 달러

마. 기타

- 전년동기 대비 투자액 증가율은 대양주는 27.9%, 중동은 19.9%, 아프리카는 5.2%로 모두 소폭 증가세를 보임.
- 주요 투자 사업
 - B사의 오스트레일리아 광업 투자 : 6.2억 달러
 - L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0.6억 달러
 - M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제조업 투자 : 0.6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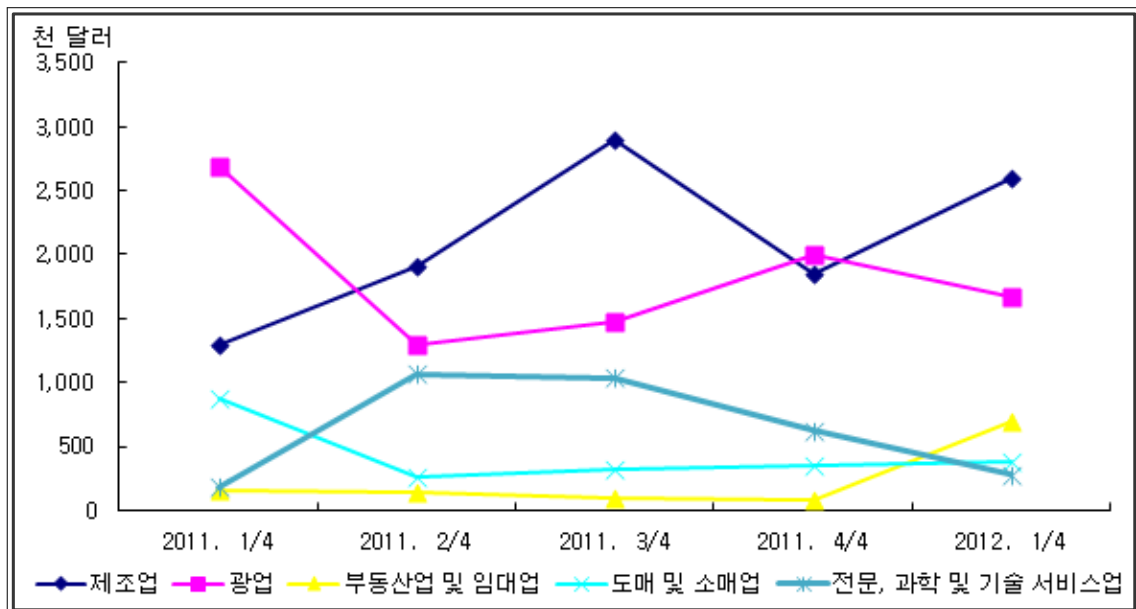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업종별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2.1%, 제조업 100.7%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.5%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33.3% 등의 업종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반면, 금융 및 보험업 -65.2%, 건설업 -58.8%, 도매 및 소매업 -56.7%, 운수업 -41.9%, 광업 -38.0% 등은 감소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 41.9%, 광업 26.9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.2%, 도매 및 소매업 6.2%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.6% 순을 기록하여 제조업이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
 - 제조업의 경우 국가별로 필리핀(8.6억 달러), 중국(4.1억 달러), 브라질(3.5억 달러), 일본(1.4억 달러)의 순으로, 광업은 오스트레일리아(6.4억 달러), 미국(6.1억 달러), 캐나다(1.0억 달러), 미얀마(0.8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22.4%, '10년 29.5%, '11년 31.1%, '11년 3/4분기 42.8%, '11년 4/4분기 28.9%
 -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26.8%, '10년 30.1%, '11년 29.2%, '11년 3/4분기 21.7%, '11년 4/4분기 31.3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1/4		2012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4,550	848	7,141	1,118	7,950	1,063	1,294	285	2,597	597
(비중)	22.4%	34.2%	29.5%	39.0%	31.1%	38.7%	20.8%	41.6%	41.9%	37.0%
(증가율)	-35.8%	-39.3%	57.0%	31.8%	11.3%	-4.9%	3.7%	10.9%	100.7%	-22.5%
광업	5,440	67	7,295	53	7,464	48	2,693	13	1,669	12
(비중)	26.8%	2.7%	30.1%	1.8%	29.2%	1.7%	43.3%	1.9%	26.9%	2.0%
(증가율)	32.9%	-38.5%	34.1%	-20.9%	2.3%	-9.4%	243.2%	8.3%	-38.0%	-7.7%
금융 및 보험업	2,001	48	3,261	63	3,429	67	468	18	163	8
(비중)	9.8%	1.9%	13.5%	2.2%	13.4%	2.4%	7.5%	2.6%	2.6%	1.3%
(증가율)	-7.3%	-41.5%	63.0%	31.3%	5.2%	6.3%	269.7%	20.0%	-65.2%	-55.6%
도매 및 소매업	1,795	528	1,201	662	1,821	617	882	155	382	118
(비중)	8.8%	21.3%	5.0%	23.1%	7.1%	22.4%	14.2%	22.6%	6.2%	19.8%
(증가율)	-52.1%	-33.2%	-33.1%	25.4%	51.6%	-6.8%	340.0%	-3.7%	-56.7%	-23.9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제조업

- 금분기 제조업 투자는 26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.7% 증가, 신규법인수는 221개로 22.5% 감소
 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9.1억 달러)과 1차 금속 제조업(3.5억 달러) 투자의 전년동기 대비 각각 4,093.3%, 66.0%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국가별로는 필리핀(8.6억 달러), 중국(4.1억 달러), 브라질(3.5억 달러), 일본(1.4억 달러), 프랑스(1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17.5억 달러로 56.6% 비중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60.1%, '10년 74.8%, '11년 70.2%, '11년 3/4분기 77.2%, '11년 4/4분기 54.3%
- 투자금액 비중은 41.9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7.0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평균치에 가까우며 점차 증가추세임.
-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9.1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3.5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2.9억 달러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.9억 달러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1.2억 달러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1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3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는 16.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.0% 감소하였고, 신규법인수는 12개로 7.7% 감소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(11.6억 달러)의 전년동기 대비 53.3%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국가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(6.4억 달러), 미국(6.1억 달러), 캐나다(1.0억 달러), 미얀마(0.8억 달러), 마다가스카르(0.6억 달러), 베트남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42.3%, 39.0%로 상당 부분 차지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55.4%, '10년 17.4%, '11년 42.6%, '11년 3/4분기 50.5%, '11년 4/4분기 61.3%
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4.7%, '10년 5.5%, '11년 16.9%, '11년 3/4분기 11.8%, '11년 4/4분기 17.4%
- 신규법인수 비중(2.0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26.9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매우 큰 편임.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5.2억 달러) 투자비중이 91.1%, 금속 광업(0.9억 달러)이 5.2%를 차지함.

4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.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5.2% 감소하였으며, 신규법인 수는 8개로 전년동기 대비 55.6% 감소함.
 - N사의 금융업 투자 실적 없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중남미(1.2억 달러), 아시아(0.1억 달러), 대양주(0.1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5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6.7% 감소하였으며, 신규법인 수는 118개로 전년동기 대비 23.9% 감소
- 국가별로는 일본(1.2억 달러), 독일(0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투자비중이 각각 31.3%, 22.2%임.
- 세부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(2.2억 달러),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(1.0억 달러) 순임.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.3% 감소하여 그 비중이 83.6%로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2.6% 증가하여 그 비중이 14.5%로 확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09		2010		2011		2011. 1/4		2012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6,689	281	20,131	373	20,507	2,750	5,251	72	5,182	69
(비중)	11.3%	82.1%	13.0%	83.0%	80.1%	1.9%	84.5%	10.5%	83.6%	11.6%
(증가율)	-1.3%	-27.2%	20.6%	32.7%	1.9%	13.3%	122.0%	-2.7%	-1.3%	-4.2%
중소기업	3,317	1,184	3,687	1,361	4,111	1,302	878	346	901	293
(비중)	47.8%	16.3%	47.5%	15.2%	16.1%	47.3%	14.1%	50.5%	14.5%	49.1%
(증가율)	-44.1%	-36.9%	11.2%	14.9%	11.5%	-4.3%	1.6%	5.2%	2.6%	-15.3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83.6%인 반면, 신규법인수 비중은 11.6%에 그치고 있는 바, 대기기업의 투자건별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인 것으로 보임.

2. 대기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1.5억 달러), 광업(15.6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5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대기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41.5% 차지
 - 대기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7.8%, '10년 25.3%, '11년 27.8%, '11년 3/4분기 46.1%, '11년 4/4분기 24.9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5.8억 달러), 대양주(6.7억 달러), 북미(6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4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1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46.0% 차지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4.1%, '10년 51.5%, '11년 51.4%, '11년 3/4분기 40.3%, '11년 4/4분기 64.0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4.6억 달러), 중남미(1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1/4		2012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44	1,956	588	2,167	554	2,091	210	567	186	482
~200만달러 이하	941	285	1,052	380	979	355	315	66	313	63
~500만달러 이하	1,321	110	1,393	140	1,247	125	411	25	362	21
~1000만달러 이하	1,126	45	1,359	72	1,369	67	377	6	506	14
~5000만달러 이하	4,106	56	4,439	79	4,719	76	1,193	18	983	10
1억달러 이하	2,629	13	2,231	12	3,546	15	586	2	971	2
1억달러 초과	9,659	13	13,183	18	13,181	21	3,123	1	2,879	5

- 건당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81.5%에서 금분기 83.2%로 증가한 반면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의 비중은 54.1%에서 51.1%로 감소하여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.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80.5%에서 금분기 78.3%로 감소

<표 6>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1/4		2012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430	21	306	17	178	13	32	3	74	4
~ 50% 미만	1,582	294	2,941	370	2,753	365	462	84	365	56
50%	657	84	192	103	687	94	280	24	197	30
~ 100% 미만	1,607	245	3,633	253	3,345	223	440	58	708	39
100%	16,050	1,834	17,173	2,125	18,631	2,055	5,001	516	4,856	468